

해군3함대 강대승 상사, 헌혈 300회 달성

“국민의 군인이자 해군의 일원으로 헌혈을 통해 국민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27년간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부사관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 강대승(45) 상사다.

강 상사는 13일 포천시 헌혈의집 유달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수여받았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을 30회 실천할 경우 ‘은장’, 50회째 ‘금장’, 100회째 ‘명예장’, 200회째 ‘명예대장’, 그리고 300회째에는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하고 있다.

강 상사는 1996년 처음 헌혈을 시작한 후 27년간 꾸준히 헌혈을

“헌혈로 나눔 실천 기쁨”... ‘최고명예대장’ 수상



군사경철대대 강대승 상사와 부인 노수경 씨. /제3함대 제공

실천해오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위급환자들

에게 혈액이 부족하다는 헌혈 홍보를 보고 처음 헌혈을 시작한 강 상

사는 200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명 사랑 실천을 위해 꾸준히 헌혈에 동참했다. 이후 2013년 헌혈 100회를 달성해 헌혈유공장 ‘명예장’ 수여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18년에는 200번째 헌혈을 실천해 헌혈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강 상사는 헌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물론, 음주도 자제하고 있다.

또한 평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마라톤, 헬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강 상사는 그동안 모은 헌혈증서 300장 중 200장을 이미 수혈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목포=김근호 기자

포토뉴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 마약범죄 근절 캠페인 동참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마약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며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박애리 명칭,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목포는 안식처’ 목포시는 국악인 박애리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 출생인 박씨는 전날 배우자 판관현준과 목포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목포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기탁식에서 박씨는 “늘 생각하고 보고 싶어지는 나의 안식처는 고향 목포”라고 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한국에너지공대 이도현, 韓산업응용수학회 포스터 우수상 수상

전국 대학원생들과 경쟁... ‘역량 개발해 성과내고 싶어’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은 2학년 이도현 학생이 지난 5월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산업응용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KSIAM)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의 대학원생들과 경쟁해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그의 의의가 있으며, 권택의 교육환경에 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도현 학생이 발표한 연구의 제목은 ‘Short-Term Wind Speed Forecasting Using Reservoir

Computing with Empirical Mode Decomposition’로 축적컴퓨팅(Reservoir Computing)의 핵심인 Reservoir를 동기화(Synchronization) 모델링에 사용되는 쿠라모토 동역학 시스템(Kuramoto Dynamical System)을 사용해 디자인했다. 특히 단기 풍량 예측에 최적화되도록 풍량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축적컴퓨팅 안에 하이퍼파라미터 값을 풍량 데이터 예측에 최적화되도록 정밀하게 튜닝하는 알고리즘을 선보였다.

또한 LSTM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s),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ESN (Echo State Neural Network) 등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의 결과와 비교해 제한한 모델의 우수성을 수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도현 학생은 “부족하지만 김현주 교수님과 학교의 도움으로 수상할 수 있었고, 권택에서 열심히 역량을 개발해 성과를 나타내고 싶다”고 밝혔다. /주지호 기자

‘구강관리로 건강미소’ 18일 무등산서 캠페인



광주시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기념해 18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지구탐방안내센터에서 민·관·학 합동 ‘구강 건강 캠페인’을 연다.

광주시와 광주시치과의사회가 주관하고 5개 자치구 보건소, 광주여자대학교(치위생학과)와 함께 하는 이날 캠페인은 ‘다시 찾는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를 슬로건으로 ▲구강관리법과 잇솔질 교육 ▲충치 검사(류웨이 검사) ▲구강용품 배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홍보 등이 진행된다.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은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구치의 구(구))를 숫자화한 ‘9’를 조합해 평생 사용해야 할 영구치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 구강 진료사업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학교구강보건실(8개소)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2023 장애 학생 인권보호 한마당’

13일 플로깅 행복산책 시작...오는 7월6일까지



광주시교육청이 13일 플로깅 행복산책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2023 장애 학생 인권보호 한마당’을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광주교육시민협력진흥원, 산동고 천수공원 등 세 권역에서 개최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

사를 통해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의 장애 공감문화를 확산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관내 학생, 교원 650명이 행사에 함께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다름다운 우리, 함께

누려야 할 아름다운 인권’이라는 주제로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약 한 달 동안 다채로운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13일 펼쳐진 ‘다름다운 모두, 플로깅 행복 산책’으로 하나되기’는 교직원과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직원 60명이 참여했다. 이는 산동고 천수공원 일대를 함께 거닐며 장애 인권에 대한 의견을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다.

또 시교육청은 ▲다름다운 인권 캐릭터 공모전 ▲다름다운 우리, 다채로운 동물들과 소통하기 ▲함께 누릴 아름다운 인권을 위한 교원대상 직부연수 2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조선주 기자

순천대, 과기부 ‘SW중심대학’ 사업 선정

8년간 최대 220억 확보...지역 산업 특화 SW인재 양성

순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한 ‘2023년도 SW중심대학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3일 순천대에 따르면 SW중심대학사업은 대학 교육 체계를 SW 중심으로 혁신하고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매년 국비 20억원(8년간 150억원)을 지원해 대학 교육의 체질 개선과 SW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순천대는 2023년부터 최장 8년간 국비 150억 원과 지자체 지원 자금 등 최대 22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초·중·고등학생부터 일반 시민, 재학생과 지역 기업 재직자를 아우르는 ‘SW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대는 ‘글로벌 공융협업 SW생태계 혁신 선도 대학’을 비전으로 대학 교육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및 ESG를 선도하는 ‘4대 포스트’ 기

반의 SW인재 양성에 나선다. SW 중심의 교육혁신을 위해 순천대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교육과를 포함한 34개 학과가 참여해 ▲구조(대학 교육 전반의 SW 전환) ▲교육(전공 관련 SW 교육 강화) ▲취·창업(협력 기업 1천 개로 확대) ▲가치혁신(초·중·고교 및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SW 교육시스템 구축)의 4대 포스트를 8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추진과정에서 SW 교육 대전환의 가치에 공감한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등 지자체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순천대는 지역 전략 산업 발전과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북구시설관리공단, 민관 합동 ‘썩썩DAY’

‘예산절감 썩! 시설정화 썩~’...ESG 경영 청신호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3일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및 협조체계 강화를 강화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썩썩DAY’를 추진했다.

‘썩썩데이’란,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시설 이용 주민들과 공단 예방관리반이 중심이 되어 쾌적하고 청정한 시설을 조성하는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공단의 주요 역점사업인 예방관리반은 예방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설관리팀의 특별일이다. /권형안 기자

이날 행사를 위해 북구야구협회, 야구동호회, 그리고 업무 협찬기관인 동구장애인 복지관과 공단 임직원 및 북구종합운동장 야구장에 함께 모였다. 공단이 관리하는 북구종합운동장은 배수로 사이사이 투기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던 곳이다.

썩썩데이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배수로와 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전남보건환경연, 깨끗한 수생태계 보전 온힘

7월까지 동부권 7개 시군 29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깨끗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수 등 동부권 7개 시군 29개 공공하수처리시설(500m³/일 이상)을 대상으로 7월까지 수질검사 능력 향상 기술 지원에 나선다.

이같은 기술 지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실험실을 대상으로 측정·분석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실험실 운영실태 점검과 정도 관리 현장평가 지원, 항목별 실험지

도, 장비 사용방법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또한 대상 시설에 대한 유입수와 최종 방류수를 채취·분석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은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동부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매년 기술 지원을 해 시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유입수·방류수 수질검사로 처리 효율을 확인하고 있다.